

파크골프!!! 미래 먹거리로 우뚝 서다

Vol.21



여러분은 파크골프 아시나요?

고령자 전용 취미활동이라 치부되는 그 파크골프 말입니다. 파크골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철 불어오는 광풍이라고 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변화 기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꼭 끄집어낸다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슈퍼 시니어(super senior)'를 자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엽적 열풍이라고 하기에는 전국 단위로 파크골프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파크골프장이 서울 (13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인천 43개, 강원 37개, 영남권 184개, 충청권 61개, 호남권 66개, 제주 6개입니다.¹⁾ 파크골프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하여 총 3회에 걸쳐 미래먹거리로 손색없는 파크골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매경이코노미(2025.4), 파골의 진화...절반 가격에 더 리얼한 스크린. 정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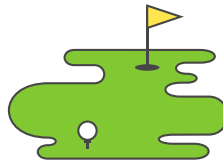


우리나라 파크골프장 1호점은 여의도 63빌딩 앞 하천부지에 약 2,300평 규모의 '여의도한강공원 파크골프장'입니다. 2004년도에 개장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2025년도 8월 현재 파크골프장은 490여 곳이 됩니다. 2020년 254곳과 비교한다면 약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풍가도(疾風街道)라고 표현해도 어울릴만한 성장세입니다. 2024년 기준 파크골프장 수가 905개를 돌파했다고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²⁾ 전국 파크골프 인구수(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 수 기준)는 2020년 4만 5천명에서 2025년 8월 현재 22만 1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파크골프 인구는 일부 언론에서는 백 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대한파크골프협회는 6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³⁾

(2025.8 기준)



파크골프 인구
22 만 명



파크골프장 수
490 여 곳

파크골프가 일상 취미활동에서 스포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에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파크골프학과를 신설한 대학이 2022년 영진전문대를 시발점으로 현재 대전대학교(파크골프학과), 목포과학대학교(파크골프산업복지학과), 구미대학교(파크골프지도과), 포항대학교(파크골프 미래라이프계열) 등 7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에 신설하겠다는 2개의 대학교도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 수준을 넘어 대회 기준과 장비 규격 등 프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사매거진(2025.7). 고령사회가 키운 성장 엔진, 파크골프. 신현희

3) 조선일보(2025.10.10.). 파크골프에 빠진 한국...대회만 500개, 대학에 학과까지

그뿐이 아닙니다. 동국대학교와 가천대학교, 신한대학교는 파크골프 최고위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2026년도 개설을 목표로 1기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실기와 지도법 등 파크골프 기본에 충실할 뿐 아니라 산업동향 등 미래 먹거리로서 파크골프를 조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는 고령층에 한정된 여가활동이라는 선입견이라는 딱지를 뗄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장이 훨씬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젊은 청년층이 대학교에서 체계적 학문적으로 배우고, 파크골프 연관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장이 한정적이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세대를 초월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파크골프가 프로가 될 수 있는 징조입니다. 바로 파크골프 실업팀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화천군이 2024년 7월 전국 최초 파크골프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산천어 축제'에 한정된 겨울 관광 수입을 연간 관광으로 확장해 보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화천군은 동호인으로부터 파크골프 성지로 불리는 만큼 파크골프 메카에 걸맞은 사계절 내내 관광이 가능한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화천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 모집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응모자는 무려 600여 명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원자 대부분이 60대 이후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40대에서부터 연령층이 폭 넓게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 파크골프가 고령자 취미활동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사례로 TV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TV 프로그램은 시청률에 웃고 울고 합니다. 그만큼 추세에 민감한 것이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TV에서 파크골프를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 파크골프 예능으로 NBS 한국농업방송 '18홀의 승부사'와 MBN·OBS가 동시 방송하고 있는 '렛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짝꿍', 춘천MBC '인생굿샷'이 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는 가족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닌 개인의 건강과 세대 간의 어울림이 공존하고 따스한 소통이 버무려진 복합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파크골프 붐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교육업, 콘텐츠 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동

KMA 시니어랩 전문위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KMA 시니어랩

초고령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시니어 대상 경력개발사업, 시니어 대상 정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려는 조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